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12호 【루계 제24890호】 주체104(2015)년 4월 22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건설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원산육아원, 애육원은 이 세상 천만부모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후대들에게 안겨주시는 또 하나의 은정어린 선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 평양에 이어 각 도들에도 육아원과 애육원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 건설할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지난 2월 몸소 원산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는것을 체질화하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원산육아원, 애육원이 드디여 완공을 눈앞에 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건물외부만 보아도 멋있다고, 두달전에 이곳을 돌아볼 때는 먼지가 풀썩이고 골조만 서있었는데 벌써 완공을 앞두었다고, 이 일대가 천지개벽되였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은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전진한다는 당중앙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투쟁하고있는 인민군대의 숭고한 혁명관, 미래관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행복의 선경들이 련이어 펼쳐지는 사회주의락원에 멋쟁이집이 새로 일떠섬으로써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릴수 있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육실, 교양실, 아동도서실, 자연관찰실, 지능놀이실, 오락실, 종합놀이장, 물놀이장, 목욕실, 리발실, 치료실을 비롯한 육아원, 애육원의 모든 방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시공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원아들의 보육과 교육교양, 성장발육, 지능계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모든 시설들을 구색이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였을뿐아니라 요소요소들을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그들의 창발성, 자립성을 키워줄수 있게 잘 꾸렸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중앙에서 내려보내준 표준설계에 준하면서도 지방의 특성에 맞게 건설하였다고, 특히 애육원의 원형관통홀을 새롭게 형성한것을 비롯하여 설계와 시공을 특색있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건설하면서 외벽과 내벽타일, 위생자기는 물론 야외에 깔아놓은 고무깔판도 우리가 만든 마감건재를 리용하였는데 세계적수준이라고, 이것은 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기뻐하시였다.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내외부가 볼수록 멋있다고 하시면서 팔방미인이라고, 우리의 설계와 시공이 날이 갈수록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것이 알린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른것만큼 보육원, 교양원대렬을 잘 꾸리고 교구비품과 집기류, 운영물자 등을 충분히 보장해주는것을 비롯하여 운영준비를 착실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면서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흠잡을데 없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희한한 궁전이 일떠섰다고,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뛰여놀게 될 원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심정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설계도면들을 검토하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머지않아 준공식을 하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인민군군인들이 투쟁하고있는 건설현장을 찾을 때마다 천리마, 만리마를 타고 내달리는 조국의 전진속도를 느끼게 된다고, 이런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투쟁을 벌리였다는데 수고들이 많았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또 하나 일떠서게 되여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원산육아원, 애육원과 같은 아이들의 궁전은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위해주며 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일떠설수 있다고, 여기에 바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남은 공사를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도록 완전무결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제아동절인 6월 1일에 원산육아원, 애육원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온 세상에 더 높이 과시하고 아이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로동당시대의 메아리로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정 론

백두산으로 오르자

이 나라 일만산악을 거느린 조종의 산 백두산이 천지를 뒤흔들며 태동하고 있다. 그 웅건장중한 뫼부리에 백설을 흩날리며 자기의 위대한 주인을 또다시 맞이한 기쁨으로 세차게 설레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온 나라가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경축한 환희로운 봄날에 백두산에서 울려온 소식은 그 얼마나 충격적이였던가.

백두산이 생겨 보기 드문 숭엄한 화폭이 펼쳐졌다.

일찌기 빨찌산 김대장이신 우리 수령님을 우러러 산비탈바위우에 청년 한분 버쩍 올라선다, 후리후리한 키꼴에 흰 두루마기자락이 대공으로 솟아오르려는 거센 나래같이 퍼덕인다고 격조높이 웨친 유명한 서사시의 구절처럼 백두산정에 서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장군기상은 누리에 빛발치고 그이의 환하신 미소는 엄동의 설한도 봄빛으로 바꾸실듯 그리도 열정에 넘쳐있었다.

눈가루, 돌가루, 얼음가루를 사정없이 휘뿌리며 금시라도 온몸을 날려버릴듯 태질하는 칼바람에 옷자락날리시며 장쾌한 백두산해돋이를 부감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모습,

그이의 밝은 미소를 받아 백두의 해돋이는 더욱 붉게 타는것만 같고 창공을 치뚫듯이 높이 솟은 백두의 메부리는 그이의 기상이 어려 더욱 굳세게만 안겨왔다.

그 모습 화폭에 담는다면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제일의 명화가 되고 절세위인의 그 열정의 세계를 선률에 옮긴다면 이 세상 가장 장중하고 격조높은 울림이 되리라.

장군의 그 발걸음따라 백두산정에 오른 총친 열혈장부들이 태양의 한품에 몸을 맡기고 세상이 떠나갈듯 호호탕탕 웃음을 터치던 모습들은 또 어떤가.

초당 25m로 불어치는 눈보라강풍속이였건만 우리 원수님과 그이의 두리에 겹겹이 뭉친 전투비행사들의 모습은 정녕 용암마냥 이글거리는 심장의 모양이고 하늘높이 치솟는 감격의 격파였다.

참으로 몇백자루의 붓끝이 닳도록 노래하고 몇만권의 책에 담아도 다 터치지 못할 숭엄한 위인세계, 혁명세계가 여기서 빛발치고있다.

우리 원수님께서 돌보셔야 할 국사는 얼마나 천만가지이고 한몸에 떠말아안으신 혁명의 중하는 얼마나 무거우신가.

가셔야 할 곳, 해결하셔야 할 일들이 많고많건만 어찌하여 그이께서는 그 모든것을 뒤로 미루시고 지난해 가을에도 가시고 꽃이 피는 이 봄날에도 백두산으로 오르신것인가.

아마도 우리 원수님처럼 백두산을 사랑하시는분은 없으리라.

과연 그이 아닌 그 누가 잠풍한 날의 해돋이가 아니라 칼바람이 지동치는 폭풍속의 해돋이를 그리도 환희롭게 맞이할수 있으며 날아가던 새들도 얼어서 돌덩이처럼 떨어지고 말사슴도 네발을 버티고 서서 슬피 운다는 그 사나운 눈보라를 훈풍처럼 여길수 있으랴.

백두산해돋이는 그 어디서나 볼수 없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절경이라고,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새날은 백두산에서부터 밝아온다고 하시던 그 숭엄한 세계, 백두산에 대한 그 불같은 사랑의 세계를 알아야 그이와 끝까지 혁명을 할수 있다.

백두의 칼바람이야말로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벼려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고 원쑤들에게는 돌풍이 되여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라고, 우리는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 불타는 신념의 세계를 알아야 그이와 끝까지 생사를 같이할수 있다.

우리 얼마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출중한 위인상을 뜨겁게 칭송했던가.

탁월한 선군령장,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창조의 거장…

우리는 그 모든 위대성의 근저에 백두산악과도 같은 신념이 있다고 말하게 된다.

신념은 보통인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령도자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령도자의 정신적지주가 무엇이고 신념이 무엇인가에 따라 력사의 방향타가 달라지고 인민의 생사가 판가름된다.

우리 원수님께 있어서 백두산은 단순히 추억의 산, 그리움의 산만이 아니다.

그이께 있어서 백두산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상봉하시는 곳,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없이 굳건히 서있는 신념의 산악이다.

이름모를 어느 바위우에서도 한놈도 놓치지 말라고 추상같이 웨치시던 우리 수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 혼미해지는 의식을 가다듬으시며 《**일제놈의 발굽소리는 더욱 요란타 금수강산 우리 조국 짓밟으면서**》라고 선창하시던 《**반일전가**》의 노래가 귀전을 치고 밤깊도록 꺼질줄 모르던 사령부천막의 등불이며 남먼저 헤치시던 새벽어스름도 안겨온다.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또 한분의 위대한 백두산주인으로 성장하신 우리 장군님의 혁명생애도 여기서 숭엄히 빛발친다.

청소년시절 답사행군대오를 이끄시고 오르셨던 그 걸음을 이어 선군의 나날 사나운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강성조선의 앞날을 구상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발자욱이 찍힌 곳은 그 어디…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의 눈보라한생이 어려있는 백두산에서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대를 이어 끝까지 혁명할 애국의 뜻, 신념의 뜻을 새기시는 우리 원수님께 있어서 백두산이야말로 또 하나의 최고사령부작전지휘터였고 언제나 마음속에 빨찌산의 행전을 두르시고 공격전의 구상을 무르익혀가시는 혁명의 참모부뜨락이였다.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혁명을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지닌 위인만이 이렇게 설한풍휩쓰는 칼바람전장에 좌지를 정하고 혁명을 령도할수 있고 그 험난한 행군길을 멈추지 않을수 있다.

그이께 있어서 백두산은 조국의 한부분이 아니라 조국을 품어안은 혁명의 성산이였고 조국의 새날을 밝히는 려명의 시작점, 천만국사의 중심점이였다.

되새겨보면 그이의 지나온 3년에 어느 한 발자국, 혁명시간중의 어느 한초라도 백두산과 련결되지 않은것이 있었던가.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 원수님께서 이어오신 빛나는 령도와 헌신의 장정은 백두의 칼바람에 혁명의 돛을 달고 헤쳐온 수호와 창조의 자욱자욱이였다.

그 성스러운 3년에 이름을 단다면 그것은 백두의 행군길이고 그이께서 품에 안아 떠올리신 조국의 이름은 백두산대국이다.

피눈물의 바다에서 인민을 안아일으키시며 생눈길을 헤치는 심정으로 싸워나가자고 하시던 불타는 호소도 다름아닌 백두의 생눈길에 천신만고자욱을 새겨가던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싸우자는 의지의 분출이였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모시고 주체위업완성의 길을 끝까지 가자고 하시던 그 절절한 당부도 이 나라를 오로지 백두의 넋과 기상이 차넘치는 강국으로 만드시려는 위대한 심장의 맥동이였다.

바로 그래서 그이께서는 팔을 끼고 어깨겯고 나아갈 총대전우들에게 안겨주고싶으신것 많아도 백두의 넋이 어린 권총을 수여하시며 조국수호의 의지를 굳게 다져주시였다.

백두산장군의 무적필승의 그 발걸음따라 천리방선엔 백두의 기상이 나래치고 원쑤들의 아성엔 서리찬 백두산칼바람이 폭풍쳤다.

우리 최고사령관동지의 백두산식공격정신과 신출귀몰한 빨찌산식전법에 그 무슨 《평양점령》이요, 《필승》이요 하며 기고만장하여 날뛰던 미제와 그 추종자들이 얼마나 통쾌하게 너부러졌던가.

세상을 놀래우는 이 땅의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들, 미래를 향하여 질풍처달리는 우리 조국의 비약의 기상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슴에 고동치는 백두의 혁명정신의 세찬 분출이다.

우리 원수님처럼 백두산을 사랑하자.

어디서나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하게 누구나의 삶의 구호가 되여 울려퍼지는 오늘날의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민심이며 시대의 벅찬 흐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승리의 신심이 차넘치고 나아갈 길이 파도쳐 달려오는 4월의 그 뜻깊은 백두산화폭은 그대로 천만군민을 백두의 행군길에로 부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타는 호소문, 뜻깊은 연설문이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선군조선의 기상이 응축되여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이며 조선혁명의 발원지, 승리의 상징, 선군혁명의 영원한 등대이다. 자나깨나 마음을 정화하고 넋을 자래우고 신념을 굳히는 그런 등대가 있다는것은 얼마나 크나큰 긍지이고 행복인가.

백두산에 한번 올라와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여기에 오르면 자신들이 거인이 된듯 심장이 커지고 힘이 용솟음친다고, 억천만번 죽더라도 혁명을 하겠다는 결심이 백배해진다고 말한다.

백두산칼바람을 맞고온 사람들은 벌써 눈빛과 걸음새부터가 다르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던 전투비행사들이 그렇게 펄펄 나는 빨찌산이 되였다.

그날 한 인민군대지휘성원이 지은 시구절은 얼마나 우리 가슴 울려주는가.

…

오 백두산 백두산
너는야 수령님의 산
장군님의 산
원수님의 산

태양의 산
백두는 만리대공에
백발을 휘뿌리며 웨친다

수령님을 닮으라!
장군님을 닮으라!
원수님을 닮으라!

시대의 전형, 변혁을 창조하는 오늘의 기적의 주인공들은 다 백두산바람을 맞고온 사람들, 바로 백두산장군들의 넋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는 사람들이다.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불길이 타번지는 어느 전투장에 가보아도 좋다. 백두의 풀물오른 군복차림으로 답사행군을 한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일군들이 앞장에 서있다.

모닥불을 피워 때식도 함께 나누고 가랑잎을 깔고 빨찌산들처럼 숙영도 해본 그들이 삼지연대기념비의 《진격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대오앞에 서서 백두산폭풍을 일으켜가는 이 시대의 숨결은 얼마나 격동적인가.

백두의 칼바람정신, 백두산신념!

바로 이것으로 우리는 오늘 혁명전사의 빛나는 삶과 값높은 영광을 말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과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말한다.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량식!

백전백승의 교과서와도 같은 백두의 혁명전통!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

이것을 뼈와 살로 만들고 피줄기로 꿋꿋이 이어나갈 때 오늘의 총진군의 승리자가 될수 있고 혁명의 머나먼 길을 끝까지 갈수 있다.

총과 배낭밖에 없었던 우리 투사들이 빼앗겼던 나라를 찾고 위대한 우리 조국을 일떠세웠듯이 백두의 칼바람정신만 있으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고 그 어떤 거창한 위업도 다 이룩할수 있다.

우리앞에 가로놓인 고난과 시련이 천겹만겹이라 하라. 백두의 칼바람은 그 어떤 죽음의 장벽도 깨버리는 투지와 용기, 힘과 의지를 주리라.

백두의 칼바람처럼 용감하고 억세게, 강하고 맵짜게, 순결하고 기백있게 사랑하고 증오하고 창조하고 투쟁하라!

시대는 달라지고 많은것이 변하였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것이 있다.

그것은 백두에서부터 추켜든 주체의 표대이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어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이다.

우리가 맞선 원쑤들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삼천리강토를 피바다에 잠그었던 원쑤들, 우리 선렬들이 피흘리면서, 허리띠를 조이면서 맞서싸운 그 철천지원쑤들의 후예들이 어떻게 피를 물고 날뛰는가를 보라.

수십년째 계속되여온 경제제재와 봉쇄책동도 그렇고 하늘, 땅, 바다를 시끄렇게 뒤덮으며 침략의 큰불을 지르려는 전쟁연습소동도, 조선을 기어이 압살하려는 모든 흉악한 책동들도 극도로 증대되고있다.

모략의 소굴들에서 고안된 허위와 날조가 뻐젓이 유엔의 마당에서 론의되여 천만부당한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이라는것이 채택된것이 결코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악랄한 원쑤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 벌어지는 이 땅에선 생활과 투쟁의 순간순간이 전장의 시계초침으로 흐른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은 가증스러운 원쑤들보다도 우리 마음의 기둥으로 높이 세운 혁명신념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것이다.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것이 바로 주체위업계승의 시대에 혁명의 주력이 되여야 할 새 세대들이 자기 근본을 잊어버리는것이다.

신념우에 모든것이 있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장식하는 황홀한 새 집들,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온 나라에 차넘치는 버섯향기, 사회주의바다향기도, 최첨단돌파전으로 주령지는 과학기술의 열매도,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그 모든 방대하고 어려운 투쟁의 성과여부도 바로 신념에 달려있다.

신념만 있으면 천만시련도 웃으며 뚫고나갈수 있고 항일의 투사들처럼 연길폭탄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수천만 아들딸들을 백두산으로 부르는것이다.

세상사람들모두가 제나름의 꿈을 안고 이길저길을 택한다 하라. 우리 인민은 어제도 오늘도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밖에 모른다.

어제날에는 우리 수령님곁에 항일혁명투사들이, 우리 장군님곁에 항일의 정신을 계승한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충신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우리 원수님곁에 그이와 뜻과 운명, 정을 함께 하는 이 시대의 빨찌산, 백두산동지들이 많아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전구에서 전투비행사들을 만나니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난 심정이라고 하신 그 뜻깊은 심중의 세계에 자신들을 세워보아야 한다.

시대가 찾고 혁명이 찾고있다.

과연 누가 우리 원수님곁에 설수 있는 진정한 빨찌산전우가 될수 있고 백두산동지가 될수 있는가.

백두산에 올라 천지의 부석을 안았다고, 사령부귀틀집앞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칼바람정신을 저절로 체득하는것이 아니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뼈속까지 스며든 사람만이 우리 원수님과 생눈길의 전우가 될수 있고 당정책신봉자로도 될수 있다. 그래야 자기 일터를 조국처럼 지킬수 있고 우리의것을 열렬히 사랑하며 한가지라도 더 창조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쓸수 있다.

조선의 공민, 백두산대국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백두산을 삶과 투쟁의 영원한 주소로 안고 살아야 한다.

누구나 자기들이 맡은 초소를 백두산초소, 빨찌산전구로 생각하자.

우리 생활과 투쟁의 시간에는 한초의 공백도 없이 백두의 칼바람이 세차게 몰아쳐야 하며 백두의 공기로 마음을 씻어가며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또 단련해야 한다.

가시덤불 험한 길 앞을 막아도 목적하는 혁명위업 이룩해가자라는 《혁명군의 노래》를 부르며 억척같이 일어설줄 알고 설사 절해고도에 홀로 남는대도 항일의 그 엄혹했던 41년도바람에 자신들을 세워보며 신념의 칼날을 시퍼렇게 벼려야 한다.

하여 백두산에서 지펴진 혁명의 불길이 마침내 전민항전에로 이어져 조국해방작전의 승리로 이어졌듯이 이 나라의 모든 빨찌산전구들에서 이룩되는 련전련승의 포성이 최후승리의 축포성으로 하루빨리 이어지게 하자.

백두산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한 혁명의 용광로가 되여 혁명가들의 신념을 억세게 벼려주고 이 나라의 모든 아들딸들을 더 굳세고 용감한 투사로 키워 내세우리라.

위대한 혁명정신의 고향, 우리 운명과 미래의 등대인 백두산이여, 세세년년 높이 솟아 빛나라!

우리 네 품에서 배운 정신과 슬기와 기상으로 기어이 최후승리의 대안에 가닿으리라.

승리의 붉은 기발을 백두산대국의 령마루에 보란듯이 꽂으리라.

박옥경, 리 건

열렬한 애국으로 빛나는 고귀한 한생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혁명의 길에서 강의한 의지로 모진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시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투쟁을 적극 벌리시였으며 자신의 모든것을 혁명에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니의 온 생애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심어준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은 생애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만경대에서 열두식구나 되는 큰 집안의 장손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의 공대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집안팎을 거두고 설겆이와 빨래, 길쌈을 하시느라 언제 한번 허리를 펼 사이가 없는데다가 낮에는 농사일로 진종일 밭에 나가계시였다. 그러시면서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끝없는 헌신성과 지성을 다하여 도우시느라 녀사께서는 늘 바쁘게 지내시였으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서슴없이 맡아나서군 하시였다. 어머니는 일평생 혁명가들의 밥을 해주다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의 구절을 읽으며 우리는 녀사께서 지니신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에 대하여 깊이 느끼게 된다.

김형직선생님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도와 눈보라,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험한 령도 넘고 시련을 헤쳐가시던 나날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면서도 그것을 락으로 여기신 어머님이시였다. 하기에 강반석어머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시였을 때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고 원쑤 일제를 천백배로 복수할 마음을 굳히시였으며 아드님들을 혁명의 길로 떠미시였다.

평소에는 그렇게 부드럽고 인자하시였건만 엄동설한 천리길을 걸어온, 그것도 2년만에 만나보는 사랑하는 아드님을 하루밤도 재우지 않으시고 그날 밤으로 다시 떠나보내신 어머님의 웅심깊은 사랑의 세계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녀사께서는 집안에 달려들어 만행을 저지르는 원쑤앞에서 분노로 피를 끓이시며 볼테면 보라고 원쑤들과 굴함없이 맞서싸워 놈들을 전률케 하시였다.

이러한 강의한 성품을 지닌 녀사이시였기에 병상의 고독속에서도 서슴없이 아드님을 혁명의 길로 떠나보내시며 력사에 길이 전해질 말씀을 남기실수 있었다.

네가 쌀자루까지 지고다니며 어머니를 부양하게 될줄을 나는 몰랐다. 앓고있는 이 에미걱정때문이겠지.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고맙기는 하다만 그만한것으로 위안을 받을 내가 아니다. 부녀회를 늘이려고 무송에서랑 네 손목을 잡고 험한 령을 넘어다닐 때에 오늘 이런 위안이나 받자구 그랬겠느냐? 너에게는 더 큰일이 있다. …내 걱정은 말구 어서 네 갈길이나 빨리 가거라. …

남만원정의 길을 앞두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토기점골에 들리시였을 때 어머님의 병세는 더욱 위급하였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시였다. 이야기과정에 집안살림이나 자신의 병세가 화제에 오르면 얼른 매듭을 지어버리고 다른 문제를 꺼내시였다.

그날 오래간만에 만난 아드님께 강반석어머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유격대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량세봉선생과는 어떻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가, 근거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등 혁명과 관련된 문제들이였다.

참으로 강반석녀사는 인류력사에서 일찌기 찾아볼수 없는 위대하고 강의한 어머니의 귀감이시였으며 혁명가들의 심장은 어떻게 고동쳐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신 탁월한 녀성혁명가이시였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은 없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려는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신 강반석어머님께서 영원한 리별이 될수도 있는 혁명의 길로 사랑하는 아드님을 떠나보내시자니 마음이 오죽했으랴.

사랑하는 아드님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싶으시여 문설주를 짚고 오래도록 바래워주시던 강반석어머님!

어머님의 마지막 그 모습을 회억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의 모습은 차라리 어머니라기보다도 스승에 가까운 모습이였다고 후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사실 남만원정을 앞두고 집에 잠간 들리시였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환에 계시는 어머님과 너무도 어려운 집살림형편을 두고 선뜻 걸음을 옮길수 없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나라를 찾기 위하여 먼길을 떠나시는 수령님께 돈 20원을 넘겨주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의 그 다심한 사랑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시며 집둘레를 돌고 또 도시였다.

쏟아지는 눈물을 강의한 의지로 누르시며 어머님께서 그날에 하신 말씀이 오늘도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상기두 무엇이 걱정돼서 그렇게 떠나지 못하구 우물쭈물하느냐? 나라를 찾겠다구 결심품구 나선 사람이 그렇게도 마음이 예리고 집걱정이 많아서야 어떻게 대사를 치르겠니. …

네가 장차로도 이 에미걱정때문에 집으로 찾아올 생각이라면 아예 이 문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아들은 만나지 않겠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나는 아들로서 그처럼 의에 불타고 열로 빛나는 강직하고 숭고한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어머니는 온몸에 불붙는 그 의와 열로 하여 순식간에 재가 될것 같은 형상이였다고 쓰시였다.

그렇다. 자식을 한가정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신 혁명의 어머니, 자식들은 부모에게 도리를 하기 전에 나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위대한 혁명의식을 심어주신 엄격한 스승이 바로 강반석어머님이시였다.

참으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어머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며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혁명생애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꾸어가시는 내 나라, 내 조국강산에 별처럼 빛날것이다.

전광남

박봉주총리

수산성 몽금포수산기지건설장 현지료해

【평양 4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내각총리는 수산성 몽금포수산기지건설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우리 인민들의 식탁우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넘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구상에 따라 서해의 몽금포지구에 절임과 건조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굴지의 수산기지가 일떠서고있다.

건설자들은 20여일동안에 1만여t의 어획고를 기록하여 뜻깊은 태양절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인 서해지구 수산부문 어로공들의 자랑찬 위훈에 고무되여 3단계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총리는 수산성 몽금포수산기지총계획형성안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건뎅이하선작업으로 들끓고있는 부두와 건조장, 어로공합숙건설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물고기잡이실태와 건설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군협의회가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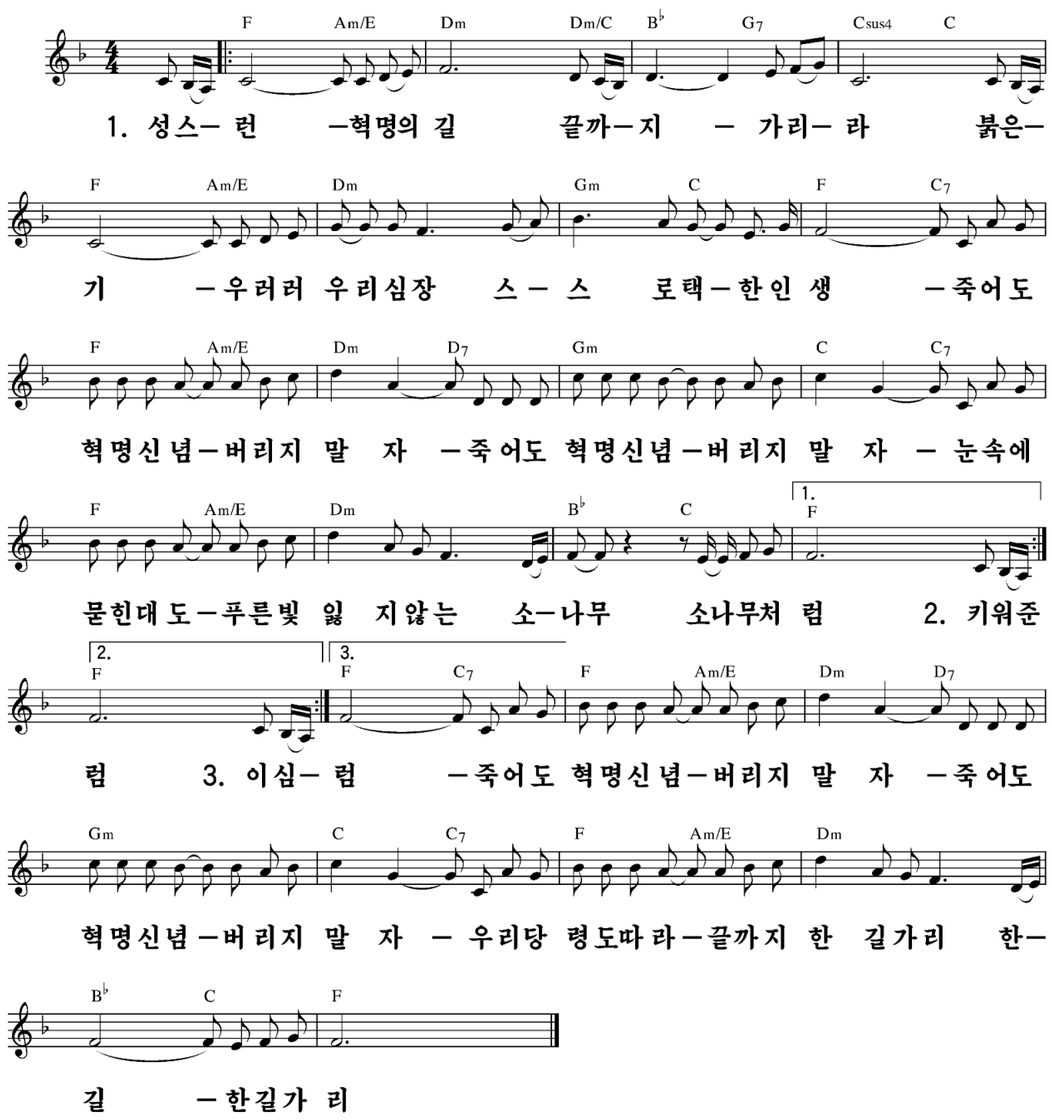
협의회에서는 몽금포를 굴지의 수산기지로 전변시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를 건설하고있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부두확장과 준첩공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는 등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또한 이곳 수산기지에 젓갈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우리 식의 젓갈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강구되였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작사 리지성
작곡 우정희



2. 키워준 품 받드는 량심도 의리도
순간도 변심을 모르는 신념으로 빛나더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부서져 가루돼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 백옥처럼

3. 이 심장 높뛰는 한 일편단심 따르리
우리 당 위대한 숨결에 운명의 피줄 이으리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열백번 불에 타도 곧음을 잃지 않는
참대 참대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우리 당 령도따라 끝까지 한길가리
한길 한길가리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폭풍쳐 내달린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조선청년들의 슬기와 용맹이 높이 떨쳐지고있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머칠전 멀고 험한 이곳 발전소건설장을 몸소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당과 수령의 위업을 실천으로 받들려는 불타는 충정과 나라의 전기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는 열정을 지닌 청년돌격대원들이기에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처음 맡아해보지만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까지 1호, 2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세운 조선청년들의 자랑찬 전통을 이어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백두대지에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애국의 호소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청년돌격대원들은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울 충천한 기세로 산악같이 떨쳐나 1호발전소 콩크리트언제타입공사와 2호발전소 물길굴건설 그리고 언제타입공사에 필요한 골재생산전투에서 련일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다그쳐 끝내며 거창한 대자연개조와 대건설의 여러 전구들에서 청춘의 기념비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 현장련합지휘부에서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공사를 립체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특히 지난 시기보다 한달앞당겨 타입을 시작한 1호발전소 콩크리트언제타입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력량을 집중하고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깊이 들어간 일군들은 모든 전투원들이 1호발전소 언제를 먼 후날에도 손색없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울 애국의 일념안고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이미 발전소건설장에서는 중앙전력설계연구소, 라남수력발전소 시공조직설계연구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여러차례의 현장기술협의를 진행하여 지난 시기보다 계절을 한달이나 앞당겨 언제타입공사에 들어갈수 있는 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3일동안에 골재장 확보를 위한 철도인입선공사를 와닥닥 해제낌으로써 타입공사를 본때있게 내밀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지난 4월 1일 아침 계절을 앞당겨 일제히 언제타입공사에 진입한 함경남도려단의 전투원들은 지금 매일 백수십㎥의 콩크리트타입을 진행하면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전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휘틀제작에 필요한 통나무를 자체로 마련하면서 타입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언제타입공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수송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에로 전동맹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도별자동차수송경쟁을 조직하여 수많은 골재, 세멘트를 운반하여 공사가 적극 추진되도록 하고있다.

8.28청년돌격대관리국 운수기동려단과 도별자동차수송경쟁에 참가한 운전사들은 평양시려단이 타고앉은 골재채취장으로부터 1호발전소까지, 발전소건설장에서 100리가 넘는 백암청년역까지 멀고 험한 고개길을 넘고넘으며 강재와 세멘트, 골재수송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2호발전소 물길굴피복공사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평성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한 50여명의 리수복청년결사대의 전투원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모퉁이들을 맡아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며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충정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1호발전소 언제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있으며 2호발전소 물길굴피복공사에서도 전례없는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련관단위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건설장에 설비,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철도성 일군들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당원들과 청년동맹원들이 증산한 수천t의 세멘트를 집중수송렬차로 수송하기 위한 전투를 벌려 청년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몸소 발전소건설장에 찾아오시여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하루빨리 승리의 보고를 드리려는 청년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온 발전소건설장이 그대로 대비약, 대혁신의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철주

굴진을 앞세워 석탄생산 105%로 장성

석탄공업부문의 탄광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탄부들이 석탄증산투쟁에서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석탄공업성적인 1.4분기 기본굴진, 준비굴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고 석탄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5%로 장성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석탄공업부문과 화력발전소들에서 혁신을 일으킨 기세로 석탄과 전력생산을 늘이며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당면한 전력수요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전기문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분기간 석탄공업성에서는 화력탄보장탄광들에서의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였다. 특히 화력탄보장탄광들에 대한 담당제를 실시하여 성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증산투쟁으로 끓어번지는 현장으로 내려가 석탄생산에서 걸린 고리들을 시급히 풀어주도록 하였다.

결과 그 어느때보다도 성과각지 탄광련합기업소, 탄광들사이의 련계가 강화되고 일군들의 협동작전밑에 석탄생산성과가 확대되였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1.4분기 석탄생산계획, 기본굴진계획, 준비굴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계획수행기간 2.8직동청년탄광과 령대탄광의 석탄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였다. 특히 천성청년탄광에서는 정초부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일평균 수백t의 석탄이 더 생산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일군들이 우리 식 경제관리의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함으로써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이 비상히 높아진 결과 대부분 채탄장들에 능률적인 관성식적재운반설비들이 도입되고 어느 갱, 어느 중대, 어느 소대에서나 전례없는 생산실적이 기록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탄광의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중심고리를 굴진선행에서 찾고 굴진에 힘을 넣음으로써 높은 굴진실적이 기록되고 80여개의 예비채탄장이 마련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월봉탄광에서 혁신이 일어났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이 경제작전과 지휘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해나감으로써 탄광에서는 정초부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하루평균 수백t의 석탄이 더 생산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남양탄광, 형봉탄광, 제남탄광, 서창청년탄광, 덕성탄광, 덕천탄광 일군들도 기관차를 직접 타고 화력발전소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도 분기간 좋은 굴진성과가 이룩되였으며 분기 석탄생산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남덕탄광, 인포탄광, 송남청년탄광, 득장청년탄광, 명학탄광, 룡산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석탄증산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분기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할바없이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에 보내주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조양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계속혁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분기간 화력탄보장을 책임적으로 하였다. 개천탄광, 자강도공급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뜻하지 않은 조건으로 석탄을 운반할수 없다면 한몸을 서슴없이 탄차에 들이미는 결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였고 무진대청년탄광, 신립탄광에서도 분기간 좋은 생산실적이 기록되였다.

혁신의 불길은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강동탄광,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은 불리한 생산조건에서도 분기 석탄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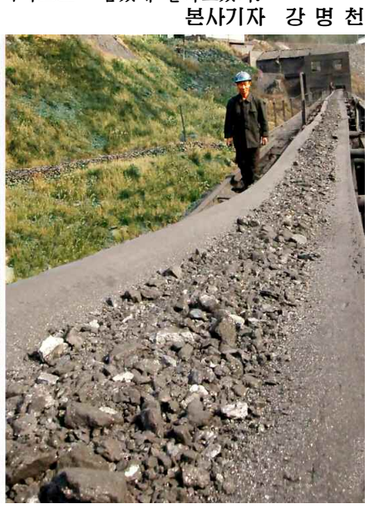
안주, 천내, 경원, 온성,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도 분기 석탄생산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삼신탄광, 전천탄광, 사리원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분기간 자랑찬 석탄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득장탄광기계공장, 덕천탄광기계공장, 순천탄광기계공장을 비롯한 각지 탄광기계공장들과 공무단위들에서 채탄장당 생산성과 리용주기를 높일수 있는 여러 운반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탄광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1.4분기간에 이룩된 전투성과에 조금도 만족함이 없이 더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할 드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조양탄광에서- 본사기자 찍음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할 기세로

한천수산사업소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배이상의 어획고 기록

한천수산사업소의 고기배들이 몽금포중심어장에서 맹렬한 어로전을 벌려 높은 어획고를 기록하고있다.

현지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3월에 이어 4월에 들어와서도 수산물생산에서 련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특히 지난해보다 몇배로 높아진 4월생산계획을 뜻깊은 태양절까지 완수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사업소에서는 올해의 어로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수천t의 수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과감한 진군길에 새겨지는 위훈의 자욱마다에는 높은 생산성과로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가려는 사업소일군들과 어로공들의 결사관철, 결사옹위의 투쟁정신이 력력히 어려있다.

한천수산사업소는 올해에 서해수산부문 생산에서 큰 몫을 맡았다. 이곳 당, 행정일군들은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방도를 출어일수보장과 대중의 정신력발동, 과학적인 어로전을 벌리는데서 찾고 모든 사업을 전투적으로 짜고들고있다. 특히 주광건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함성드높은 중심어장과 포구마다에서 수시로 협의회를 열고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의 도수를 한층 높이면서 걸린 문제를 앞장에서 풀어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3월 하순에야 서해에서 어로전투를 벌릴수 있다던 기존관례를 타파하고 한달이상 앞당겨 바다에 진출하여 과감한 어로전투를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물고기잡이준비를 앞당겨 끝낼 목표를 내세운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강추위와 싸우며 선체보수와 기관수리를 다그쳤고 그물뜨기작업을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벌리였다. 그리고 모두가 떨쳐나두텁게 얼어붙은 얼음을 까내고 수리정비를 끝낸 고기배들을 바다에 띄우기 위한 전투에 진입하였다.

격랑을 맞받아 중심어장을 남먼저 차지한 이곳 1, 2선단의 어로공들은 3월과 4월에 련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들은 웬간한 파도에는 아랑곳없이 기망회수를 늘이고 그물과 갑판설비들의 정상관리를 짜고들어 어획고를 나날이 높이였다.

선단별, 고기배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정철성, 문경득, 강원준선장의 안강망선들이 실적을 크게 내면서 경쟁에서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11619호, 1285호, 11506호운반선의 어로공들은 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기동적으로 운반작업을 다그쳐 안강망선들의 작업시간을 늘이고 수산물의 선도를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사업소에서는 중심어장을 차지한 지휘선의 역할을 높여 더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과학적인 어로전을 벌리고있다. 현대적인 탐색설비들을 갖춘 지휘선에서는 서해의 물고기잡이명수로 소문난 기사장이 사업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모든 고기배들의 어로작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고있다.

또한 그물수리와 예비부속품확보사업을 예견성있게 짜고들고 모든 력량을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로 지향시키고있다.

얼마전 사업소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온실남새를 비롯한 많은 부식물과 예비그물, 부속품들을 싣고 중심어장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림으로써 모든 고기배들에서 보다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도록 어로공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당창건기념일까지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기어이 돌파할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포구마다에는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제품의 질을 국가와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

모란봉구역품질감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모란봉구역품질감독소는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주체100(2011)년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질감독부문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신 단위이다. 최근년간 이 단위에서는 품질검사수단과 방법의 현대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품질감독사업을 보다 방법론있게 짜고들어왔다. 하여 합격품의 비중을 훨씬 높이였으며 구역에서 생산하는 중요제품의 절반이상을 2월2일제품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감독부문 일군들은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국가와 인민앞에 책임졌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원칙적립장에서 제품검사를 깐깐히 하고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는데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생산단위의 역할과 함께 품질감독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기에 우리 당은 품질감독부문 일군들을 중시하고있으며 그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 모란봉구역품질감독소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오늘날 품질감독부문 일군들이 어떤 실력과 실천력을 지니고 제품의 질을 국가와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있다.

다방면적인 실력가가 되라

어느 품질감독원에게나 담당단위가 있다. 사실 한개 단위의 질제고와 관련한 실무에 완전히 정통하는것 자체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곳 감독원들은 담당단위뿐아니라 구역의 다른 단위 품질감독사업을 임의로 맡겨도 손색없이 해내고있다.

그 비결에 대한 소장 최영선동무의 이야기는 교훈적이였다.

몇해전 3월이였다. 구역의 어느 한 식료품생산단위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제품을 생산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였다. 그리하여 담당품질감독원 한사람의 능력으로는 제품검사의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소장과 품질감독원들은 낮에는 맡은 단위에서 사업을 하고 밤에는 식료품생산전투현장에 나가 제품검사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생각과 달랐다. 담당단위가 아니다보니 그에 대한 실무가 없었고 검사의 신속성보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것이다.

식료품문제 하나만이 아니였다. 피복을 비롯한 다른 제품생산에서도 계속 제기되고있는 문제였다. 담당감독원 한사람에게만 맡겨둔다면 제품검사의 과학성, 신속성보장에 지장을 주고 나아가서는 형식주의가 싹틀수 있었다.

감독소일군들은 이것을 단순히 담당단위에 국한된 실무적인 문제로 대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실력가가 되지 않고서는 자기 단위 사업을 국가와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질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그후 일군들은 감독원들을 그 어떤 단위의 품질감독사업을 맡겨주어도 손색없이 해내는 다방면적인 실력가로 준비시키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펼치였다.

우선 매주 2차 진행되는 기술학습의 내용과 형식을 바꾸었다. 종전에는 소장이나 급수가 높은 몇몇 감독원들이 기술학습에 강사로 출연하군 하였다. 학습내용은 대체로 품질감독사업의 개선강화를 위한 일반적문제에만 치우쳐있었다.

일군들은 그러한 일반적문제가 아니라 모든 감독원들이 식료, 피복, 일용품공업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제품검사에서 나서는 기술적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강의안들을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특히 자기 담당단위들에서 만드는 제품의 질제고와 관련한 문제들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술하는데 힘을 넣도록 하였으며 누구라 할것없이 기술학습에 강사로 출연시켰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감독원들의 인식능력을 빨리 높여줄수 없었다.

더욱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 일군들은 감독원들이 강의안작성에 품을 들이는 한편 담당단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직접 가지고 강의에 출연하여 구체적인 설명까지 안받침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이 담당단위의 질제고에 이바지할수 있는 여러가지 다매체편집물들도 자체로 만들도록 하였다. 사실 모든 감독원들이 콤퓨터를 리용하여 다매체편집물들을 척척 제작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전문가적능력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일군들은 한주일에 2회정도 외국어시험을 정상적으로 조직했고 그에 대한 총화도 꼭꼭 따라세웠으며 콤퓨터실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이 과정에 감독원들이 자체로 제작한 편집물들은 생동한 직관성으로 하여 몇백마디의 말이나 수십차례의 강의와는 대비할수 없는 우월성을 나타냈다. 모든 감독원들은 그 계기를 통하여 자기 담당단위뿐아니라 다른 단위의 질제고를 위한 실무까지 환히 꿰들게 되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에 제시된 당정책을 자자구구 학습하는 과정에 품질감독일군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품종별제품카드를 만들어줄데 대하여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다시 새기였다. 의사가 사람들의 건강검진을 할 때 시력은 몇m에서 얼마 봐야 정상이고 맥박은 얼마 뛰여야 정상이라는것을 알고있듯이 품질감독일군들도 어느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원료와 자재가 얼마 들고 규격과 강도는 얼마로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을 다 알고있어야 한다는 뜻깊은 가르치심이였다. 감독소일군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품카드와 감독규정을 갱신하는 사업도 동시에 내밀었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도 있듯이 생산공정의 중요감독점들을 종전처럼 글이 아니라 사진으로 찍어 카드에 반영함으로써 보는 사람 누구나 대번에 알수 있게 하였다.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과 그에 따르는 질적개선정형 등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카드에 정상적으로 보충해놓으니 실효는 더 커졌다. 품질감독사업과 인연이 없는 사람도 이들이 만든 제품카드를 보면 잠간사이에 품질감독원이 될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조국을 떠받드는 힘은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력에 있다. 이들처럼 다방면적인 실력가가 될 때 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요구성에 헌신성을 더하자

언제인가 최영선소장이 제품검사과정에 생산현장일군들과 의견상이를 일으킨 한 감독원과 마주앉은적이 있었다.

《합격도장을 찍자니 량심이 허락치 않습니다.》

물론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제품검사에서 타협이 허용되지 말아야 하는것은 명백했다. 그것은 품질감독원들이 내세워야 할 높은 요구성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소장으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하게 했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무슨 일에서나 결함은 주관에서 찾고 성과는 객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품질감독부문 일군들이 제품이 완성된 다음에만 검사하려 하지 말고 생산현장에 직접 내려가 모든 생산자들이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지 않았는가.

품질감독원의 책임성, 그것은 결코 높은 요구성 하나에만 귀착되는것이 아니였다. 요구성도 어떻게 제기하는가에 따라 책임성으로 이어질수 있고 특세로도 될수 있었다. 결과를 놓고 이것은 합격이요, 저것은 불합격이요 하는 식으로 검사도장만 찍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자대중과 숨결을 같이하며 그들로부터 우리 품질감독원이라고 불리우는 감독원이 되라는것이 바로 당의 뜻이였다.

요구성에 헌신성을 더하자.

일군들부터 이런 립장에서 품질감독원들을 이끌었다. 원료입하로부터 제품출하에 이르는 생산의 전 과정에 불합격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담당단위 생산자들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지난 3월 중순 모란피복공장에서 학생교복생산이 거의 끝나갈무렵이였다. 포장재가 부족하여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안타까와했다.

그러한 때 감독소일군들과 감독원들은 생산자의 립장에 서서 앞채를 메고 뛰였다. 감독소의 모든 성원들이 총동원되여 며칠사이에 많은 량의 파비닐을 수집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시안의 어느 한 생산단위에로 달려갔다. 사연을 알게 된 그 단위 일군들은 자기 일처럼 발벗고나섰다. 더우기 그들이 생산단위 일군들도 아니고 다름아닌 품질감독원들이라는 사실이 그곳 일군들에게 준 충격은 컸다. 감독소일군들과 감독원들은 이렇게 부족되는 포장재를 자체의 힘으로 전부 해결하여 모든 교복들의 개별포장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모란식료공장에서 포장끈과 포장지가 부족하여 애를 먹고있을 때에도 이들은 유휴자재를 적극 수집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요구성에 헌신성을 더한 참신한 사업방법은 제품의 질제고에서 눈에 띄는 전진을 안아왔다.

품질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은 구역의 많은 생산현장들을 찾아 공정별검사만을 짜고들지 않았다. 때로는 생산자들에게 후방물자도 안겨주고 일도 함께 하였다. 작업의 쉴참에는 질제고와 관련한 경제선동도 활발히 벌리였다. 한두번의 계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으로 일관시켰다.

그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20일강습을 계기로 많은 후방물자를 마련해가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전국각지의 많은 생산단위들을 찾았다. 들끓는 현실속에서 로동계급의 깐진 일본새를 자기들의 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부단히 탐구하였으며 령도업적단위 로동계급답게 질제고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해달라는 절절한 부탁이 담긴 예술소품공연도 매번 진행하였다. 그렇게 찾은 단위수는 무려 수십개나 된다. 참관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구역의 생산단위 일군들과 마주앉아 앞선 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작전도 함께 토의하였고 걸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기도 하였다.

이곳 품질감독원들이 담당단위의 기술혁신과제수행까지 도와준 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고있는가. 소장부터가 다른

봄철위생월간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교육교양사업과 함께 중시한 문제

남포수산대학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학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관리운영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교육환경을 잘 꾸려 대학의 모든것이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실물교육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남포수산대학에서 봄철위생월간사업이 활기있게 벌어지는 속에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나날이 변모되여가는 교정의 모습과 더불어 대학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가슴속에 대학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있다.

저절로 이룩된 성과가 아니다. 봄철위생월간사업을 교육교양사업 못지 않은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방법론있게 내밀고있는 대학일군들의 일본새가 안아온 응당한 결실이다.

무엇부터 시작하였는가

천리길도 첫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모든 일에서는 첫시작이 중요하다. 하다면 남포수산대학에서는 봄철위생월간사업의 첫걸음을 어떻게 떼였는가.

이번 봄철위생월간에 진행해야 할 사업들을 놓고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았을 때였다.

일부 일군들과 교원들속에서는 이 사업이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인것으로 하여 만성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들은 교육교양사업이 바쁘다는것을 구실로 위생월간사업을 겨울동안에 묵은 먼지나 털어내는것으로 대치하려는 지난 시기의 낡은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리봉일, 김황혁 동무를 비롯한 대학책임일군들은 이러한 관점을 바로잡아주는것으로부터 위생월간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학교교육사업지도에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의 하나는 위생문화사업이며 대학생들은 새로운 생활기풍을 세우는데서도 앞장서야 한다는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책임일군들은 대학교정에서 진행하는 위생월간사업을 단순히 겨울난 흔적이나 없애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에게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교육조건과 교육환경을 더 잘 갖추어주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았다.

한개 강좌씩 맡은 대학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최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되고있는 여러 대학들의 혁신적인 성과들을 이야기하며 이 기간에 우리 손으로 교정을 더 번뜻하게 꾸려놓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여기서 일군들이 중시한것이 있다. 교직원들에게 위생월간사업이 단순히 대학을 번듯하게 꾸리는 사업이기에 앞서 당의 교육정책을 더 잘 받들기 위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준것이다.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한 사상교양사업의 실효는 참으로 대단했다.

기숙사개건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으며 강좌실들과 교실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벌어졌다. 이나날 교원들속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에 지장이 있을세라 밤시간을 리용하여 저마다 어려운 일감들을 도맡아나서는 아름다운 소행들도 꽃펴났다.

남포수산대학에서의 올해 봄철위생월간사업은 이렇게 이 사업을 대하는 낡은 관점을 바로잡고 중요성과 절박성을 인식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정상적인 사업으로

봄철위생월간사업의 성과는 몰라보게 달라져가는 대학건물이며 새것처럼 만들어놓은 창문들과 책걸상들에만 비껴있지 않다. 일군들은 기숙사를 더욱 알뜰히 꾸리는 사업도 발기하고 짧은 기간에 호실들을 새롭게 꾸려놓았다. 봄, 여름, 가을철만이 아니라 겨울철까지 내다보며 대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불편이 없게 훌륭한 조건을 갖추어주었다. 그에 만족하지 않고 리발소와 목욕탕, 탁구장 등도 그쯘하게 꾸려놓았다.

하지만 우리가 대학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찾아본것은 꾸려놓은데 그치지 않고 정상관리, 정상유지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 기풍이다.

시의 많은 일군들이 몰라보게 달라진 대학을 돌아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일이 이쯤 되자 일부 일군들과 교원들속에서는 자기들이 해놓은 일에 자부하면서 꾸리기사업은 이만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또 일부 단위들에서는 꾸리기사업에서 끝장을 본다는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론의들이 벌어졌다.

이때 대학의 책임일군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본보기로 꾸린 어느 한 강좌실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목적은 그 강좌의 교원들이 품들여 꾸려놓은 사무실관리와 새로 갖추어놓은 비품리용을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강좌실을 돌아본 일군들과 교원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그날의 보여주기사업은 꾸리기사업은 깜빠니야적으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누구나 이 사업에 습관되고 체질화되여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해주는 계기로 되였다. 교원들은 물론 학생들모두가 자기가 리용하는 교구비품들을 주인답게 관리하고 교실과 기숙사를 보다 알뜰히 관리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섰다.

남포수산대학 일군들의 사업은 봄철위생월간사업도 역시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방법론있게 진행해나갈 때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욱 알뜰히

원산시에서

원산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3, 4월위생월간을 맞으며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뜨거운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자기 고장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시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서 거리와 마을, 일터를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에서 3, 4월위생월간에 공장안팎을 알뜰하게 꾸리고 로동보호시설들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갖추는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명석동과 장덕동을 비롯한 동, 인민반들에서 살림집건물들에 대한 보수와 외장재바르기를 질적으로 하였다.

시에서는 3, 4월위생월간사업을 봄철국토관리사업과 결부시켜 힘있게 밀고나갔다.

도로보수를 맡은 단위들에서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장악한데 기초하여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짧은 기간에 도로포장과 연석바로세우기, 도로보수를 질적으로 끝냈다.

갈마지구와 내원산지구의 주민들도 모두가 떨쳐나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관목들을 많이 심고 창문들에 화분들을 놓아 거리와 마을을 환하게 변모시키였다.

이밖에도 상하수도망들과 위생시설물들에 대한 보수대책도 잘 세워 시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신천군에서

신천군의 거리와 마을, 일터의 면모가 더한층 일신되고있다.

3, 4월위생월간사업에 참가한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꾸리기사업에 헌신의 땀을 바쳐가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3, 4월위생월간 꾸리기목표를 단계별로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군급기관 일군들이 한개 지구씩 맡고 나가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사업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대중속에 심어주면서 살림집울타리와 벽체보수, 마을주변도랑정리와 잔디밭정리 등 꾸리기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특히 군급기관 일군들의 안해들이 가족소대들을 뭇고 스스로 도로관리를 맡아나섬으로써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군량정사업소와 옷공장, 화학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 근로자들도 울타리와 벽체외장재바르기를 질적으로 하였다.

백석, 새길협동농장과 새날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마을과 일터를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나가고있다.

군에서는 벼겨가스발동발전기를 리용하여 생산하는 전기로 읍지구의 불장식을 더욱 이채롭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원암리 밤나무골로부터 역앞까지 근 1.5km 구간의 도로를 손색없이 개건하고 연석설치와 코스모스심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작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특파기자

단상 봄풍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문화에도 큰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봄철위생월간사업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있다.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자기가 일하는 일터들을 화창한 봄기운처럼 환하고 정갈하게 꾸리려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어딜 가나 진하게 느낄수 있는 4월이다.

정든 가정과 일터를 멀리 떠나 돌격대를 뭇고 일하는 건설장에서의 봄철위생월간풍경은 어떠할가.

우리가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을 찾았을 때였다. 보건성돌격대원들의 숙소를 찾은 우리의 눈길을 먼저 끈것은 숙소로 들어서는 입구에 세워진 표어판들과 길가를 따라가며 곱게 놓여진 조약돌들이였다.

마치 아담한 마을의 동구길이나 산뜻한 일터의 구내길에 들어서는 심정이였다.

침구류들이 일매지게 놓여있는 깨끗하고 정갈한 침실들과 갖가지 부식물과 공구들이 칸칸이 놓여있는 창고들, 감탄이 절로 나가는 탁구장…

이곳 돌격대원들은 맡겨진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봄철위생월간을 맞으며 숙소를 더욱 알뜰하게 꾸려갈 계획들을 품을 들여 세우고있었다. 돌격대원들 누구나 자기 집을 꾸리는 마음으로 매일 한가지씩 이상의 좋은 일들을 찾아하기 위해 승벽내기로 경쟁하고있었다. 그 마음들이 돌격대숙소를 돌격대원들의 정든 집으로 날마다 변모시키고있었다.

돌격대 대장 김동건동무는 이런 일은 결코 봄철에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야 세포땅에 락원의 봄을 안아올 하나의 마음과 소원을 안고 여기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한가정, 한식솔로 한지붕아래 살면서 제고장, 제 집처럼 돌격대숙소를 알뜰히 꾸리고 사는 이들의 작업실적이 날마다 높아지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였다.

어찌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뿐이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여기가 나의 일터, 나의 마을, 나의 거리라고 정담아 부르며 정을 쏟아가꾸고 꾸려가는 그 마음들에 봄은 먼저 오는것이고 그 마음들에 받들려 조국은 해마다 아름다와지는것이다. 이것이 내 나라의 아름다운 봄풍경이 아니랴.

본사기자

자기가 사는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간다.
— 만경대구역 칠골2동에서 —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참된 삶과 행복은 조국의 품속에서 시작되고 꽃펴납니다.》

사람들은 아마 텔레비죤화면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 경축행사 기념촬영장에 나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경례를 드렸던 한 녀성전쟁로병의 모습을 기억하고있을것이다.

그의 앞가슴에 빛나는 영웅메달과 훈장들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그의 고향은 서울시 종로구, 9남매의 맏딸로 태여나 의용군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겨 값높은 삶을 누려온 그의 이름은 안병옥이다.

그의 집 한쪽벽면에는 그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들이 꽉 차있다.

우리는 남조선에 고향을 둔 한 전쟁로병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을 두고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혁명전사들이 누리는 삶이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것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느끼게 된다.

김일성장군님의 전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어버이수령님을 뵙고싶은 불같은 소망이 있었듯이 안병옥전쟁로병도 어린시절부터 그 소원을 꿈처럼 간직하고 살았다.

주체60(1971)년 가을 어느날 동림영예군인보양소 당세포비서로 일하던 안병옥동무는 평양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였다. 그날 밤 안병옥동무는 잠들수 없었다. 쿵쿵 높뛰는 마음속을 헤가르며 잊지 못할 추억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카프》문예인이였다. 가혹한 일제통치의 그 시기 아버지는 서울의 자그마한 방에 인쇄기를 차려놓고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사회를 그리는 동심을 잡지 《별나라》에 담아 발행하였다. 그런 아버지가 왜놈들에게 잡혀가고 왜놈의 학정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백두산장군별을 마음속에 그리군 하였다.

해방의 기쁨이 파도쳤던 10대의 소녀시절 그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으로 가슴을 들먹이였다. 아버지와 함께 아침저녁으로 김장군님이 오신다는 서울역을 드나들었고 아예 역에서 온 하루를 보내기도 한 안병옥동무였다. 하기에 그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고 서울이 해방되였을 때 18살 꽃나이에 용약 의용군으로 탄원하여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포화속을 뚫고 부상당한 전우들을 후송하고 그들의 머리맡에서 한밤을 지새우던 전화의 나날 간호원 안병옥동무의 머리속에 깊이 새겨진것은 김일성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인민군전사들의 모습이였다.

그는 아직도 팔공산전투에서 중상당한 기관총수의 장한 모습을 잊지 않고있다. 견디기 어려운 수술을 받으면서도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은 기관총수에게 수술이 끝난 후 안병옥동무는 아프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기관총수는 이렇게 말했다.

《기어이 다시 부대로 돌아가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할 김일성장군님의 전사가 그쯤한 아픔도 참아내지 못해서야 되겠소.》

김일성장군님의 전사!

그 영예로운 부름이 애젊은 그의 가슴에 백년, 천년을 산 나무처럼 깊이 뿌리내렸다. 자신도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라는 긍지가 가슴가득 넘쳐났다.

그후 안병옥동무는 어느 한 전투에서 중상당한 녀병사를 후송할 임무를 받았다. 환자는 복부에 몇발의 탄알이 박혀있는 상태여서 업을수도 없었다.

후송도중 최후를 각오한 병사는 자기는 걱정말고 어서 몸을 피하라고 말했다. 고향이 인천인 그 처녀는 이제 전쟁이 승리하면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딸 정애가 잘 싸우다 전사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 그를 안병옥동무는 두팔로 꼭 껴안았다.

(난 동무를 버리지 않겠어. 우리 꼭 함께 살아서 인천에도 가구 내 고향 서울에도 가자.)

그는 입속으로 말했다. 그래서 그는 곁에서 폭탄이 터질 때에는 자기 몸으로 환자를 덮었고 폭격이 멎었을 때에는 이를 사려물고 담가를 끌었다. 전쟁이 승리한 후 안병옥동무와 만난 그 녀병사가 전화의 나날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일을 해낼수 있었는가고 물었을 때 그는 말하였다. 우린 모두가 김일성장군님의 전사였다고.

꿈에도 그리운 김일성장군님의 전사가 된 긍지는 안병옥동무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중한것이였다. 하기에 그는 전화의 나날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답게 용감하게 싸웠고 19살나이에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니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안병옥동무는 추억의 갈피를 쉬임없이 번지며 토론을 했다.

1952년 12월 안병옥동무는 치명적인 타박상을 입고 전상자병원에 후송되였다. 부상이 심한 그에게 일생동안 침상에서 다른 사람의 방조로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학적결론이 내려졌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그는 소생의 따사로운 빛발을 뜨겁게 받아안았다.

나라를 위해 모래 한삽 뜰수 없고 막돌 한개 나를수 없는 그였건만 나라에서는 안병옥동무를 비롯한 전상자들에게 갖가지 보약과 고가약들을 보내주었고 유능한 의료집단도 무어 보내주었던것이다.

침상에 누워 7년, 지팽이를 짚고 또 3년,

당과 국가의 하늘같은 은정속에 영영 일어설수 없다던 안병옥동무는 10년만에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쏟아지는 눈물때문에 토론문의 글줄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안병옥동무는 심장으로 웨치고있었다.

《고향이 남조선인 저는 병원에서 상처를 회복한 동무들이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찾아갈 집이 없었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딸을 두팔벌려 반겨맞아줄 부모도 없었습니다. 헌데 외로움으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저를 친부모보다, 고향집보다 더 따뜻이 맞아 보살펴준 품이 있었으니 그 품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전쟁시기 마련해주신 동림영예군인보양소였습니다.》

보양소에서 같은 의용군출신의 영예군인과 가정을 이룬 이야기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온 이야기, 아들딸 세남매를 둔 어머니가 된 이야기 등 그의 토론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날 대회휴식시간이였다. 안병옥동무는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꿈결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를 찾으시다니?!

허둥지둥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간 그는 너무도 감격하여 변변히 인사도 드리지 못하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회복되여 건강하니 마음이 놓인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그를 몸가까이에 세우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행복의 무아경에 빠져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고 또 우러르며 안병옥동무는 마음속으로 맹세다졌다.

내 한생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로 살리라!

끝이 없는 길

그 어느 길이나 끝은 있다. 그러나 가도가도 끝이 없는 그런 길이 있다.

젊은 시절 안병옥동무는 불같이 살고 무섭게 일하였다. 남편도 간호하고 자식들도 키우며 당세포비서사업을 해온 그에게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뛰여다녀도 시간이 모자랐고 할 일이 남아있었다. 때로 힘들어 주저앉고싶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는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했다.

언제인가 그는 군종이공장에서 종이통구리를 가지고왔다. 학습장을 만들려는것이였다.

큰 기술이나 육체적부담이 요구되지 않는 그 일은 영예군인들도 능히 할수 있었다. 지난날 손에 총을 잡고 원쑤격멸에로 치닫던 그 불같은 심정을 달랠길이 없어하던 영예군인들은 모두가 환성을 올렸다. 저저마다 팔을 걷고 떨쳐나섰다. 한권의 책이라도 더 매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전투임무수행중에 있는 병사들같았다. 얼마후 그들은 수만권의 학습장을 군안의 학교들에 보내주었다.

처음으로 자기들이 만든 학습장을 학교들에 보내주던 날 그들은 흥분에 휩싸여 학습장을 실은 자동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서있었다.

수십년전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들이 만든 학습장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불비쏟아지던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돌격전의 앞장에서 용맹을 떨치던 그들은 언제나 어제날 병사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꽃피워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하고 세심한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영예군인들과 그 안해들은 힘껏 일하면서도 짬만 있으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다루며 생활의 랑만을 펼치였다. 그것은 그대로 가렬한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들어 용감히 싸운 인민군전사들의 무훈담이였고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에 대한 뜨거운 추억이였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느날 안병옥동무는 보양소당조직을 찾아가 자기들의 생활을 담은 예술공연을 준비하여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에 찾아가 경제선동도 하고 지원사업도 할것을 제기하였다. 당조직은 그의 제기를 적극 지지해주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어느 한 중요광산개발전투장에서 그들이 준비한 예술공연 《혁명의 꽃을 계속 활짝 피우며 한생을 값있게 살자》의 첫막이 올랐다.

전쟁전 은파산전투에서 호랑이로 소문났던 보양소의 고문소장 박량규동무와 락동강전투와 1211고지전투에 참가한 조성옥동무, 근위 제6보병사단의 육박전의 용사 리완서동무 등 가렬한 전화의 나날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싸운 그들의 위훈담과 마지막피 한방울까지도 조국을 위해 다 바치겠다는 한 영예군인의 자작시 《내 심장과 하는 말》 등은 군인건설자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그날 안병옥동무를 비롯한 보양소영예군인들은 자신들이 할바를 더욱 크게 깨달았다. 그들은 쉬임없이 걷고 또 걸었다.

서해갑문건설장과 광복거리, 통일거리건설장, 평양과 지방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

전국각지를 찾아다니며 1600여회의 힘있는 경제선동을 벌려 대중을 투쟁에로 고무한 보양소영예군인들의 앞장에는 언제나 안병옥동무가 서있었다.

어느덧 애젊었던 간호원처녀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리였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한생을 당과 국가의 혜택만을 받으며 살아온 그 고마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애쓴 그의 깨끗한 공민적량심과 헌신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것으로 관심하시는분이 계시는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랜 세월 당세포비서의 본분을 다하며 영예군인들의 앞장에서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안병옥동무의 공로를 귀중히 여기시여 그를 선군시대 공로자로 내세워주시였던것이다.

주신 사랑이 적으신듯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라고 전임당일군으로 내세워주시고 그의 앞가슴에 영웅메달도 빛나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정녕 안병옥동무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영광과 행복속에 흘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에서 진행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 경축행사에 안병옥동무를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기념촬영장에서 그가 올리는 무랍없는 이야기도 다정히 들어주시며 오래오래 건강하라고 뜨겁게 당부도 해주시였다.

꿈만 같았다. 전설속의 김장군을 그리며 가슴들먹이던 어제날의 철부지소녀가 오늘은 백두산위인들의 태양의 품속에서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받아안았으니 세상에 이런 행복, 이런 영광이 또 어데 있으랴.

한생토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였다. 보양소일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왔으나 안병옥동무는 자식들의 공대만을 받으며 있을수 없었다. 그에게는 자기가 가다 못 가면 자식들이 가고 그 자식들이 못다 가면 그 후대들이 이어가야 할 보답의 길이 있었던것이다. 일손을 놓은 17년전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는 자식들과 함께 보양소영예군인들을 위해 지성을 바치고있으며 원군길도 힘차게 걷고있다.

의용군출신 녀성전쟁로병의 거수경례,

그것은 전화의 그날부터 한생을 병사시절의 정보로 걷고있는 참된 당의 전사들의 영광의 권리, 행복의 권리이며 자기들의 인생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은혜로운 품에 드리는 이 나라 로병들의 감사의 인사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은별

안병옥로인(앞줄 가운데)

달라진 설비점검검열의 날 운영계획

선교편직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업이다.

아담하면서도 산뜻한 공장건물들과 구내길들, 문화회관, 정양소, 배구장…

하지만 우리의 주목은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기세차게 돌아가고있는 수백대의 현장설비들에 돌려졌다. 걸불안이라고 설비들의 겉만 봐도 그 가동상태를 대뜸 알수 있었다. 하다면 이 공장에서는 어떻게 모든 설비들을 알뜰히 관리하고 그 가동률을 부단히 높이고있는가.

달라진 설비점검검열의 날 운영계획에 그 대답이 있었다.

기사장 박승룡동무의 말에 의하면 공장책임일군들의 사업수첩에는 직장, 작업반설비들의 성능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여있다고 한다. 일군들은 이에 기초하여 설비점검검열사업을 보다 참신하고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사실 지난 시기에는 설비점검검열의 날을 그렇게 운영하지 못하였다. 그저 설비를 다루는 종업원들의 기술학습정형이나 알아보고 설비들에 쌓여있는 먼지나 털어내는 등 출석이나 긋는 식으로 이 사업을 대하였다. 그러다나니 일부 설비들은 자주 고장이 나서 공장의 생산수행에 지장을 주었다. 그러나 일군들이 설비점검검열의 날을 중시하고 그 운영을 짜고드니 결과는 달라졌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책임일군들은 매주 설비점검검열의 날 운영을 위해 수시로 임의의 현장에 나가 설비들을 료해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판정계획을 세운다.

사실 한손의 다섯손가락도 길고짧듯이 종류가 같고 사용기일이 같다고 해도 설비들의 가동상태가 다 같은것은 아니다.

실례로 꼭같이 생긴 이동재단기라고 해도 어떤것은 전동기상태가 다른것에 비해 시원치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것은 재단칼집에 이상이 생길 때도 있다. 이에 기초하여 설비점검검열계획을 세운 후 일군들은 판정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설비정비상태에 대해 일률적으로 검열하던 지난 시기와 달리 이렇게 매 설비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검열을 진행하고 분석까지 따라세우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종전에는 설비를 다루다가 조금만 이상한 현상이 생겨도 공무직장으로 달려가던 종업원들속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다루는 설비상태를 손금보듯 알고 불량개소가 나타나면 제손으로 척척 퇴치하는 기풍이 확립되였다. 결국 종업원들이 생산문화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였다.

공무직장 성원들의 일본새 또한 달라졌다. 이들은 현장들을 쉬임없이 돌아보면서 사전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확보하여 제때에 공급하고있다.

공장일군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총화사업도 따라세우고있다. 직장별로 종업원들이 드나드는 곳에 세워놓은 설비점검검열평가판을 보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평가판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자기 단위 설비상태를 정확히 알수 있게 해주는 알림판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이것은 직장별, 작업반별 경쟁열풍을 일으키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설비점검검열의 날 운영계획을 바로세우고 이 사업을 짜고드니 설비들의 정비 및 보수는 저절로 이루어지고 만가동, 만부하를 위한 든든한 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이렇듯 방법론있게 진행되는 공장의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사업은 높은 생산성과로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대단결의 숭고한 뜻이 어린 력사적인 회의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분렬된 나라를 통일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칠수 있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직하고계신 확고한 신조였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사는 민족대단결실현에 바쳐진 애국애족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지금 우리 겨레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로 단합시켜 거족적인 통일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의 뜻깊은 나날을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에 대해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시였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참으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패망한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조선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들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노들을 부추겨 《단선단정》조작책동을 악랄하게 벌리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36(1947)년 10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남북협상방안에 대하여》**에서 민족분렬의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사상과 리념, 정치적견해가 다를뿐아니라 서로 적대시하여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나라의 운명문제를 론하는데 대해 과연 누가 생각이나 해보았던가.

남북련석회의의 소집, 그것은 정녕 절세의 애국자, 탁월한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을 남조선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은 물론 우익정당, 사회단체대표들까지도 적극 지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신문, 잡지들도 그에 대해 대서특필하였다.

그러나 남북련석회의의 소집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미국은 민족주의정객들의 평양방문길을 차단하기 위해 갖은 위협과 공갈을 다하였다. 이런 속에 련석회의소집에 대해 큰 관심을 표시하던 인사들까지도 주저하고 동요하였다.

남북련석회의소집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시기 위해 우리 수령님께서는 실로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였다.

지난날 반공을 일삼은것으로 하여 평양에로 선뜻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남녘인사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극우익민족주의세력까지도 적극 포섭하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시였다. 한편 남조선대표들에게 일군들을 파견하시여 련석회의방침을 구체적으로 해설해주고 동포애의 정이 담긴 초대장까지 안겨주도록 하시였으며 그들의 마음속고충과 외람된 요청까지 탓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후날 그때를 회상하시며 만일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혀 처신을 극단적으로 하며 민족주의자들을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나갔더라면 통일전선은 지상공론으로만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통일전선을 위한 우리의 변함없는 노력과 성의앞에서는 김구와 같은 완고한 반공인사도 감동되지 않을수 없었다, 김구와 같은 민족주의자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로 돌아섰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그가 상해림정을 인정하지 않은 미군정의 처사가 고깝고 또 단순히 리승만과 의가 맞지 않아서 반공대신 련공을 한것도 아니다, 항일의 나날로부터 뜨겁게 간직해오던 애국의 열정이 우리와 김구를 하나로 융합시킨것이다라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조국통일운동사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단결을 과시한 애국적회합으로 아로새겨져 빛나고있는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이렇게 열리게 되였다.

드디여 주체37(1948)년 4월 19일부터 평양에서는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참가하에 남북련석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대책을 밝힌 **《북조선정치정세》**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지금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교시가 가슴치며 울려온다.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망국적단독선거를 단호히 거부하여야 한다. 이 거족적인 투쟁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파와 종교의 소속, 정치적견해를 가리지 말고 반드시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만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다. …

민족자주정신이 투철하고 애국애족의 의지가 차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는 전체 회의참가자들의 심장을 격동시키였다. 특히 우익정객들이 받아안은 충격은 실로 컸다. 그들이 지난날에 체험한 회의들이란 말이 애국을 위한것이지 사실상 파벌싸움, 권력싸움의 란무장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기하시고 지도하신 남북련석회의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몸바치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통일의 길로 이끌어주는 참된 기치였다.

련석회의에서는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를 단호히 반대배격할것을 결정하였으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정한 통일정부를 세우리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 인민을 투쟁에로 호소하는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이라는 격문과 함께 조선에서 외국군대의 철거를 요구하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지도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

참으로 그것은 해방후 처음으로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이 다른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민족공동의 대책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견해의 일치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한 첫 범민족적회합으로서 민족대단결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련석회의참가자들은 절세위인을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여 이룩된 민족대단결의 위력앞에 너무 감격하여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다. 더우기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오면 뵈올수록 그이께서 지니신 숭고한 민족애와 고결한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김구는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오랜 기간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고 소중히 간직해온 상해림시정부의 인장을 꺼내놓으면서 어버이수령님께 《장군님, 조선이 정말 주인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을 이끄실분은 장군님뿐이십니다. 나는 모든것을 장군님께 맡깁니다.》라고 절절하게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토록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여 이룩하신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우리 겨레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굳세여지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놓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어리석은 추태

이른바 《북핵위협》이라는것을 광고하며 남조선에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 《싸드》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과 괴뢰패당의 공모결탁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다.

며칠전 미군부의 고위인물은 남조선에 《싸드》를 배비하기 위한 론의에 들어간데 대하여 공개하였다. 이보다 앞서 괴뢰당국자들은 남조선을 행각한 미군부우두머리들을 만난 자리에서 《더해지는 북핵위협》에 대비하여 《련합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느니, 《북핵위협》을 중심에 놓고 《싸드》배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겠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었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걸고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합리화하려는 내외호전광들의 파렴치한 책동은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괴뢰들이 그 무슨 《북핵위협》을 구실로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정당화해나서는것은 뻔뻔스럽고 어처구니없는 망동이다.

핵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에게 가하고있다. 남조선에 핵무기를 처음 끌어들인것도,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쟁화약고로 만들고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며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핵전쟁위험을 조성한것도 미국과 괴뢰패당이라는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최근 북침핵전쟁도발을 위한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음모책동은 더욱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얼마전에 있은 남조선미국통합국방협의체회의라는데서 내외호전광들은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4D작전개념이라는것을 정식 작전계획으로 승격시키기로 하였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지금 이 시각도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미쳐날뛰면서 핵전쟁도발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 그래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핵위협이 아니란 말인가.

괴뢰들은 그 무슨 《북핵위협》이니 뭐니 하고 떠들 체면도 자격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낡아빠진 《북핵위협》간판을 내걸고 《싸드》배비의 명분을 세워보려 하는 괴뢰패당이야말로 외세의 핵전쟁방아간에 물을 대주는 얼간망둥이들이 아닐수 없다.

《싸드》의 남조선배비는 미국의 전략적리해관계에 따른것이다. 《싸드》의 사명과 성능을 놓고 볼 때 그의 배비를 《북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것으로 정당화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종심이 짧은 조선반도를 작전무대로 하여 상대측을 향해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싸일을 발사한다는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으로도 리해하기 힘든것이다.

따라서 남조선에는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인 《싸드》가 필요없다.

미국이 《싸드》를 남조선에 한사코 끌어들이려 하는것은 두말할것없이 우리의 주변나라들을 노린것이다. 더우기 탐지거리가 1 000km이상에 달하는 《싸드》의 레이다는 주변나라들의 미싸일발사움직임을 포착하는데 적합하다.

결국 《싸드》의 남조선배비는 전적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여 주변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목적의 산물이다.

그런데도 괴뢰들은 한사코 《북핵위협》을 떠들며 미국의 《싸드》배비놀음을 더욱 부추기고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자들인가.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각계는 물론 주변나라들까지도 《싸드》가 《북핵대응용》이라는 주장은 《어린아이를 달래는것과 같은 황당한것》이라고 비난, 조소하고있겠는가.

《싸드》의 남조선배비가 기정사실화되고있는 지금 남조선이 미국의 가장 위험한 핵전초기지, 세계적인 핵전쟁의 발원지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이야말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장본인이다.

현실은 우리의 핵보유가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다시금 반증해주고있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이 있어 세기를 이어오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속에서도 조선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있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싸드》배비책동은 우리로 하여금 선군의 기치높이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의지를 백배천배로 굳혀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싸드》배비가 결코 만능의 해결책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괴뢰당국은 《싸드》배비책동으로 차례질것이란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 수치스러운 자멸뿐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철순

김일성화전시회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인도네시아방문 50돐과 **김일성**화명명 50돐에 즈음하여 태양의 꽃 **김일성**화전시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인도네시아의 쟈까르따 따만앙르렉화초원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입구에는 《태양절》, 《경축》, 《**김일성**화명명 50돐기념 **김일성**화전시회》라고 쓴 프랑카드들이 걸려있었으며 인도네시아의 여러 정당, 단체들에서 보내온 꽃판들이 장식되여있었다. 전시회장정면에는 만경대고향집을 중심으로 **김일성**화와 주체사상탑 등을 형상한 대형배경판과 《**김일성**화명명 50돐기념 인도네시아 **김일성**화전시회 1965-2015》라는 글발이 걸려있었으며 그앞에 활짝 피여난 300여상의 태양화들이 놓여있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인도네시아방문과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온 세상에 만발한 위인칭송의 꽃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창조적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전시회개막식에는 인도네시아선봉자당, 다양성당, 쟈까르따시청, 붕카르노종합대학, 쟈까르따 따만앙르렉화초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인사들과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대표단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개막식에서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인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화는 새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꽃이다. 인도네시아인민은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끝없이 흠모하며 높이 칭송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인민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김일성**화가 온 세상에 더욱 만발하기를 바란다.

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서기는 한 나라의 수반인 수카르노대통령이 조선의 **김일성**주석께 아름다운 꽃을 드리며 **김일성**화로 명명한것은 주석에 대한 그의 다함없는 신뢰심과 인도네시아인민의 한결같은 흠모심을 보여주는것이다, **김일성**화와 더불어 두 나라 인민이 앞으로도 친선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선봉자당 대외관계위원장은 **김일성**화명명 50돐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해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붕카르노종합대학 총장은 **김일성**주석의 력사적인 인도네시아방문을 수록한 영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 영화는 수카르노대통령과 **김일성**주석께서 두 나라의 친선관계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력사적화폭으로 보여주는것과 함께 새 세대들이 이 친선관계를 굿굿이 이어나가게 하는 훌륭한 영화이다고 말하였다.

개막식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인도네시아 보고르식물원 참관식 진행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인도네시아방문 50돐과 **김일성**화명명 50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보고르식물원에 대한 참관식이 14일에 진행되였다. 인도네시아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과 보고르식물원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진문헌들과 사적표식비 그리고 전시된 불멸의 꽃 **김일성**화들을 돌아보았다.

보고르식물원 식물수집 및 채용, 자료연구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참관식을 통하여 **김일성**주석의 위대성과 주석을 우러르는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경모심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였다.

김일성화는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인도네시아뿐아니라 세계곳곳에서 널리 재배보급되고있다. 우리 식물원에서는 앞으로도 **김일성**화에 대한 재배와 보급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릴것이다.

보고르식물원 조직배양 및 란초원 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도 **김일성**화가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명화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을 상징하는 꽃으로 활짝 피여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족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웰남이 민족경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있다. 국내시장에서 국산품의 비중을 높이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있다.

당과류판매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비그 씨 웰남회사산하 백화점들에서 판매되고있는 제품의 90%가 국산품이다. 그런가하면 사이공회사산하 백화점들에서는 25개의 회사에서 생산한 약 600종의 당과류제품을 팔고있다. 이것은 판매되고있는 당과류제품가지수의 95%에 해당된다. 현재 웰남에서 생산한 당과류들은 수입산들에 비해 가격이 편안하고 질이 높으며 제품생산지가 명확하기때문에 구매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2018년에 가서 웰남당과류생산업체들의 수익은 19억US$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웰남의 당과류생산업체들은 기술혁신을 통해 제품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외국제품들을 국내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와 함께 질낮은 제품의 판매를 막으며 민족적색채가 짙은 특색있는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웰남의 음료생산회사들도 외국회사들과 치렬한 경쟁을 벌리고있다. 지난해 외국회사들의 시장점유률은 거의 50%에 달하였다. 웰남음료협회는 이러한 실정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있다. 여기서 특별히 중시되고있는것이 소비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음료개발이다. 몇년전부터 웰남에서는 약초로 만든 차의 소비량이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웰남의 음료생산회사들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한편 원기회복뿐아니라 건강증진에 유익한 음료제품개발에 선차적관심을 돌리고있다. 동시에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쳐 제품의 위생성을 원만히 보장하고 기업의 효률성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민족경제발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 웰남에서는 국내산 건재품이 구매자들의 커다란 인기를 끌고있다.

지난 시기 수입산 건재품을 사던 사람들이 오늘날 웰남에서 생산한 형태가 다양하고 질이 좋은 타일이나 벽돌, 도로포장용돌 등을 사고있다.

한 주민은 얼마전 질이 담보되고 가격도 알맞춤한 국내산 타일을 샀다고 하면서 수입산은 보기에는 괜찮은것 같지만 사실상 인차 퇴색되는 결함이 있다고 말하였다.

웰남의 시장에서는 자국에서 만든 도색감과 수지건재품, 벽판을 비롯하여 집수리에 쓰이는 여러가지 재료들에 대한 수요도 높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성강화를 떠나 자주에 대해 론할수 없다. 자립적인 민족경제는 자주독립국가의 물질적기초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조건에 맞게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해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있다.

자체의 힘으로 민족경제를 일떠세우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웰남인민의 노력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본사기자

《민심의 버림을 받는 파쑈독재 《정권》의 종말은 멀지 않았다》

《〈세월〉호는 학살!》, 《박근혜는 퇴진하라!》

각계층 군중 3만여명 서울에서 격렬한 투쟁 전개, 괴뢰청와대를 향해 시위, 파쑈경찰 폭압에 광분

【평양 4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세월》호참사 1년을 맞으며 18일 서울에서 격렬한 반《정부》투쟁이 벌어졌다.

범국민집회장인 서울 광화문광장일대는 500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을 비롯한 3만여명의 각계층 군중들로 꽉 차있었다.

괴뢰당국은 1만 4 000여명의 경찰병력을 내몰아 집회시작전부터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장으로 가던 유가족들을 포함한 20여명을 강제련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파쑈폭압속에서도 범국민집회가 열렸다.

집회장에서는 박근혜를 《세월》호참사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락인하고 진상규명과 《시행령안》폐기, 선체인양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련이어 터져나왔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참사 1년을 계기로 남조선 각지에서 매일과 같이 집회들이 전개되고있다고 하면서 3일동안만도 130개가 넘는 지역에서 추모투쟁이 벌어졌고 교회, 사찰 등을 포함하면 수천곳이나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등 해외에서도 동포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만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이를 외면한채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버리고 해외로 도피하였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국민들과 동포들이 바라는것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세월》호인양이라고 하면서 추모투쟁에 이어 모두가 힘을 합쳐 진실을 밝히는 행동을 계속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유가족들은 《세월》호안에는 아직도 실종자들이 있다, 지금도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고있는것 같다고 울분을 터치면서 《세월》호인양을 가로막는 역적패당을 단죄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청와대에로의 시위투쟁에 돌입하였다.

파쑈경찰들은 수십대의 차량들로 청와대로 향하는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고 시위자들을 향해 물대포와 최루액을 마구 쏘아대면서 무차별적인 진압에 날뛰였다.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도 물대포를 쏘아 심한 부상을 입히고 취재장비들을 파괴시켰다.

격노한 시위자들은 《〈세월〉호는 학살!》, 《박근혜는 퇴진하라!》, 《〈정부〉파산, 박근혜퇴진!》 등의 함성을 터치면서 시위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서로 팔을 끼고 경찰들과 맞서 싸우면서 경찰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항의행동도 벌렸다.

시위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였다. 투쟁참가자들은 안전한 사회,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함께 진실을 반드시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파쑈당국은 100명의 투쟁참가자들을 련행하여 서울의 여러 경찰서들에 구금하는 폭압만행을 감행하였다.

진상규명방해책동 중지를 요구

해외동포들 《세월》호참사 1년 집회와 시위

해외동포들이 《세월》호참사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집회와 시위를 전개하였다.

재미동포들은 16일 미국 로스안젤스에 있는 괴뢰총령사관앞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세월》호참사로 304명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면서 1년이 된 지금도 그들이 어떻게 되여 죽었는지조차 모르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될것이라고 밝혔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도이췰란드 베를린의 브란덴부르그문앞에서 동포들과 류학생들이 집회를 가지고 《세월》호참사에 의한 희생자들을 추모하였다.

또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해온 베를린지역 동포단체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처사를 단죄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독단과 진상규명방해책동을 중지할것을 성명은 요구하였다.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의 빠리에서도 동포들이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시위 등을 진행하였다.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남조선의 참여련대가 17일 성명을 발표하여 《세월》호참사 1년을 맞으며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던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탄압한 괴뢰경찰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16일 파쑈경찰이 서울광장에서 추모행사를 마치고 광화문광장의 림시분향소로 가던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불법》을 운운하며 탄압하고 강제련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진짜 불법행위를 저지른것은 추모활동을 권력을 람용하여 가로막은 경찰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찰이 추모행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한데 대해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련행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부패한 《정권》을 규탄

악취풍기는 부정부패의 원흉, 추악한 범죄집단인 괴뢰보수패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심이 절정에 달하고있다. 일명 《성완종사건》으로 불리우며 집권세력의 통치기반을 뿌리채 뒤흔들고있는 특대형부정부패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한결같이 비난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한 시민사회단체는 15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괴뢰국무총리인 리완구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대국민담화》라는것을 발표한지 한달만에 자신이 검찰수사대상으로 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조소하면서 범죄자는 위선의 탈을 벗고 즉각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보련대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국무총리》가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상 처음으로 되는 사태가 빚어짐으로써 남조선은 또다시 세계적인 망신을 면할수 없게 되였다고 개탄하면서 리완구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주의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한 단체도 모임을 가지고 리완구가 《국무총리》직을 유지하면서 검찰수사를 받겠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하면서 그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한편 새정치민주련합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번 사건을 집권자의 최측근들이 모두 망라된 《총체적인 부정부패사건》, 《사상초유의 권력형비리게이트》로 단죄규탄하면서 특검도입을 주장해나서고있다.

새정치민주련합 최고위원은 리완구의 자진사퇴를 거듭 주장하면서 만약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그러면서 특대형부정부패추문이 폭로되여 온 남조선사회가 죽가마끓듯 하고있는데 이것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며 해외행각의 길에 나선 집권자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하였다.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무총리》로서의 자질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품격마저 상실한 《식물총리》에게 정사를 맡겨놓고 해외도피행각에 오른 집권자에 대한 민심의 불만은 높다고 하면서 각계의 규탄여론을 모면해보려는 불순한 처사의 내막을 까밝혔다. 언론들과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성완종사건》으로 〈박근혜〈정권〉이 완전히 붕괴》될수도 있다고 평하면서 추악한 범죄집단인 괴뢰보수패당에게 조소를 보내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말그대로 국정이 만신창이다. 〈세월〉호참사 1주기를 앞두고 터진 〈성완종사건〉은 국정전반을 뒤흔들고있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린 박근혜〈정권〉》이라는 내용의 글들을 련일 싣고있다.

한 외신은 이번 사건으로 하여 남조선정치가 썩었다는 사람들의 견해가 더욱 굳어지는 속에 집권자의 지지률은 대폭 떨어지게 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있게 될 《국회》의원재보충선거를 앞두고 현 보수《정권》이 극도의 위기에 몰리게 되였다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는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파쑈독재와 권력형부정부패로 잔명을 부지해가고있는 현 괴뢰집권세력의 파멸을 예고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미

ㄱ-51062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